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Post-traumatic Growth Experiences of One Victim of Sexual Violence

Yo Wan Kim<sup>+</sup>

Department of Family Counseling, Seoul Cyber University, 60 Solmae-ro 49-gil, Gangbuk-gu, Seoul, Korea

###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case study that conducted an in-depth-interview with a sexual violence victim to find out what the participant experienced during the process of post-traumatic growth. The research questions include: what did the participant experience after sexual violence and what did she experience during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trauma. The participant was a woman in mid-40s who experienced sexual violence by a relative when young. The transcribed data of the in-depth interview were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case-study method, deriving 56 concepts, 38 subcategories, and 18 categor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 experience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such as invasive memory, negative emotion, and defense mechanism. Second, the participant experienced multiple factors of post-traumatic growth during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post-traumatic stress of sexual violence, including growth through self-disclosure, sympathy and comfort from others, facing and acceptance of trauma, self and family perception, self-disclosure to family, acceptance by and emotional exchange with family, acceptance of others and trust restoration, struggle for growth, self-confidence and affection, acceptance of life, and so on.

**Key words:** post-traumatic growth, sexual violence, self-disclosure, qualitative case study, in-depth interview

### 1. 서론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촉발된 ‘미투(me, too)운동’은 성폭력이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문화계, 가정 내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다양성과 잔혹성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경험했고 그 피해가 지속되어 왔는지,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2017년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32,824건으로, 2016년 대비 증가율은 111.6%였고, 2008년 대비 증가율은 194.7%였는데 2016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8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였다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18). 2016년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강간과 강간미수, 성추행을 경험한 여성 1,078명 중 33.2%가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 중에 1.4%만이 상담이나 병원에

<sup>+</sup> Corresponding author: Yo Wan Kim, Tel. +82-2-944-5172, Fax. +82-2-944-5268, e-mail. [kywan@iscu.ac.kr](mailto:kywan@iscu.ac.kr)

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으나, 상담치료 등을 받는 피해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황조사는 향후 성폭력범죄 제도 개선 등을 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사이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영적인 피해를 준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Chae, 2004; Choi, 2017), 성폭력 피해 후 정신적 고통을 보고하는 비율이 30%대에만 있는 이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 중에 1%대의 극소수만이 상담치료를 받는 이유 등에서는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나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한 자료가 없다. 특히, 2016년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33.2%의 응답자 외에 66.8%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를 부인하며 응답하지 않았는지 등의 이유에 대해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한 결과가 없어, 이러한 양적 통계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추측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순 통계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이유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Park & Chung, 2008). 또한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자연재해 등이 아닌 사람으로 인한 외상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외상 경험자에 비해 외상 경험과 기억에 대해 회피적인 양상을 보이는 이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없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Shakespeare-Finch, *et. al.*, 2013).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연구는 성폭력 피해의 실태와 후유증에 관한 연구(Han, *et. al.*, 2008; Kim, 2011; Seo, 2015; Yoo & Nam, 1995), 성폭력범죄 관련법에 관한 연구(Han, 2019; Kim, 2019; Lee, 2019), 성폭력 피해자 회복프로그램에 관한 연구(Kwon, 2004; Kwon, 2014; Lee, 1998)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질적연구는 성폭력 경험 자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Chae, 2018; Choi, 2018; Jeong & Gang, 2018; Lee, 2018; Moon, 2015), 피해자의 정서,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변화에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가 있기는 했으나(Draucker, 1999; Kondora, 1993; Ligiero, 2003; Valentine & Feinauer, 1993; Wang & Heppner, 2011), 다른 연구들에 비해 연구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심층면접하고 심리의 변화와 적응의 과정 등을 연구하여,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사회의 위기인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 지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심리학과 심리치료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은 긍정심리학에 기반한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의 개념이다(Tedeschi & Calhoun, 1995). 트라우마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트라우마를 회복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심리적, 관계적,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는데(Linley & Joseph, 2004; Park & Helgeson, 2006), Tedeschi & Calhoun(1995)은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명명하였다. Tedeschi & Calhoun(1996: 456-457)은 외상 후 성장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면서 “자기 인식의 변화(perceived changes in self)”,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된 인식(a changed sense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변화된 삶의 철학(a changed philosophy of life)”등 3가지의 차원에서의 변화를 정의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성장을 보였다는 연구가 있고(Burt & Katz, 1987; Frazier, *et. al.*, 2001; Draucker, 1992; McMillen, *et. al.*, 1995), 이를 통해 Tedeschi & Calhoun

(2004)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외상 후 성장의 경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외상 후 성장을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다만, 성폭력 상담사의 대리외상과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는데(Han & Park, 2018; Kim & Kim, 2015; Lee & Seong, 2014), 그 주제는 성폭력 피해자 가족의 대리외상에 관한 연구(Jeong & Cheon, 2013), 외상 후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Lee, 2010; Pi, 2017), 양적연구를 통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Jeon, 2017; Lee, 2016; Park, 2012; Park, 2014) 등이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심층면접 한 질적 연구도 있으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사례를 소개한 연구(Lee, 2018; Oh, 2010),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치료적 활동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Choi, 2018; Kong & Kim, 2014; Park & Chung, 2008). 하지만, 상담이나 치료적 활동의 결과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의 목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심층면접 하고, 특히 외상 후 성장의 관점에서 질적 연구를 한 국내 연구는 Han(2008)의 연구 외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외국의 연구에서, 빠르게 지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적게 하는 것(Frazier & Burnett, 1994), 긍정적인 성격 유형(Frazier, *et. al.*, 2004), 종교 등의 영성적 생활(Kleim & Ehlers, 2009)이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데에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Ullman, 2014), 결혼한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였다는 연구도 있다(Gwynn, 2008). 이처럼, 외국의 논문에서는 외상 후 성장 척도에 근거(Tedeschi & Calhoun, 1996)하여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성폭력 피해 외상과 다른 외상 사건과의 비교하는 연구(Kunst, 2010) 등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Ulloa, *et. al.*(2016)은 1980년부터 2014년도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미국의 모든 심리학 저널의 연구와 학위논문을 전수조사 하였는데, 성폭력 피해에서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질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여러 유형의 외상사건과 비교하여 성폭력 외상사건에서는 어떻게 외상 후 성장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진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았을 때,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다른 외상 사건에 대한 비해 성폭력 피해 사건 연구가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질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간혹 있어 왔으나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과정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대인간 상호작용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상황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기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외상을 극복한 것을 넘어 심리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 경험과 관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심층면접을 한 질적 연구이다. 특히 Stake(2000)가 제안한 질적 사례연구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데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외상을 경험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 특징을 공유하여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는 성폭력 피해 후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둘째, 연구참여자는 성폭력 피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 II. 연구 방법

### 1.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을 심층면접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 중에서 Stake(2000)가 제안한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을 활용한 연구이다. 질적 사례연구는 특정한 개인, 혹은 특정한 에피소드(episode)와 같은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Stake, 2000). 특별한 사건이나 에피소드(이하 ‘사례’라고 함)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속에서 한 개인이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사례가 전개되어가는 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질적 사례연구의 특징이다(Stake, 2000). 질적 사례연구에 대해 Stake(2000: 13)는 “단일 사례의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것”으로 정의할 정도로, 질적 사례연구는 단일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Merriam, 1988). 다만, 질적 사례연구에 대해 Yin(2003)은 사례연구에서 사례가 단일 사례이거나 복수 사례가 될 수 있고, 사례 내에서의 분석의 단위가 단일 사례에서도 복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질적 사례연구의 목적은 특정 사례의 현상을 파악하려고 하거나, 현상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반복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도 있다(Stake, 2000). Stake(2000: 23)는 “특정 사례에 대하여 학습할 필요”, 또는 “사례에 대해 본질적 흥미”를 느끼며 특정 사례를 연구하는 것을 본질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라고 하였다. 이와 대비된 개념으로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y)는 해당 사례를 통해 “어떤 다른 것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말한다(Stake, 2000: 24). Hong(2017: 43)은 본질적 사례연구에 대해 “사례 자체가 독특하여 이에 대한 관심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도구적 사례연구에 대해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그 특징을 설명하였다. Merriam(1988)은 특정 사례의 현상만을 파악하려면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해체하여 현상의 최소단위를 서술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지만, 특정 사례의 현상에서 좀 더 포괄적이

고 추상적인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체한 자료를 범주화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하였다. Yin(2003)도 사례 전체에 대한 총체적 분석(holistic analysis) 방법을 설명하면서 심층면접 자료를 최소단위로 해체하고 명명화한 다음, 명명화된 것들을 범주화하여 좀 더 상위개념으로 다시 명명하면서 추상화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Stake(2000)의 본질적 사례연구를 하면서 Yin(2003)의 총체적 분석방법을 활용하면서 심층면접을 한 자료를 단락단위로 해체하여 명명하고 비슷한 것들을 범주화하고 추상화하면서 사례에서 발견되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서술하려고 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선정 과정 및 연구윤리 준수

연구참여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기혼이고, 십대 초반에 친족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11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성 관련 수업의 수강생과 성폭력 관련 특강 참석자, 성폭력 피해상담 내담자에게 본 연구의 주제를 공지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 시 다음의 조건을 공지하였다. 즉,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경험을 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을 경험하였으나 연구참여를 결정한 시점에 외상 후 성장의 결과로 Tedeschi & Calhoun(1996)가 제시한 자기 인식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 인식에 대한 변화, 삶의 철학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를 주관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다만, 심층면접 시작 전에 연구자는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규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 증상인 외상에 대한 재경험-외상 관련 자극의 회피-각성 반응의 증가가 연구참여자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하였고, 자기 인식의 변화-타인과의 관계 인식에 대한 변화-삶의 철학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Tedeschi

& Calhoun, 1996). 특히, 심층면접을 종결하면서, 첫 번째 연구문제인 “연구참여자는 성폭력 피해 후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의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발견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두 번째 연구문제인 “연구참여자는 성폭력 피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의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했다고 인식했다고 하는 외상 후 성장의 결과가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발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두 조건이 만족된 참여자의 심층면접자료를 분석자료로 채택하였다.

한편, 2011년 2학기부터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였고 2018년 2학기까지 모집의 시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이 2013년도에 제4판에서 제5판으로 개편되었다. DSM-5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에 대해서 DSM-IV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APA, 201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2013년 이후에도 DSM-IV 진단기준을 공지하고 참여자 모집을 하였다.

만 7년간의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수업 중 성폭력 피해사실 무기명 조사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경우가 많았으나, 질적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지원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연구 주제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의사를 밝힌 지원자가 총 7명이었으나, 심층면접 시 녹음과 전사(全寫), 개인정보를 제외한 연구내용의 논문 게재 등의 연구참여자 동의서에 서명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의사를 철회한 지원자가 5명이었고 총 2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2명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에서 졸업을 한 지 1년, 3년 된 졸업생이었고 졸업 후에 연구자가 계속 성폭력 피해자를 심층면접 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지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동의서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연구목적으로의 녹음과 연구자료로서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고, 심층면접 중-후에도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참여자로서의 권리를 서면으로 알렸다. 또한 연구참여에 따른 사례로 기념품, 도서 등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2명 중에 최종적으로 1명의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가 강의한 수업의 성폭력 피해상담 파트의 내용을 수강하면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연구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강의를 수강한 지 1년 후 졸업을 하였고, 졸업을 한 지 1년이 지나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 2017년 11월에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 명의 연구참여자는 외상 후 성장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인식의 변화’, ‘변화된 삶의 철학’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장을 경험하였으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된 인식’의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Tedeschi & Calhoun(1996)이 외상 후 성장의 결과의 상태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변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심층면접은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120분간 이루어졌다. 연구목적과 제목, 자발적인 참여와 연구참여 시 중단할 수 있다는 참여자 권한, 녹음과 전사, 비밀유지와 자료의 보안 대책, 논문으로의 게재와 출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한 자료 내용의 보안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고 암호로 된 파일로 저장하였으며 완성된 전사 자료에 이름, 주소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보관하였다.

자료 분석 및 해석과정은 Yin(2003)이 제안한, 자료의 정리, 자료의 해체, 개념의 기술, 분류와 해석의 단계를 거쳤다. 자료의 정리는 심층면접 시 녹음된 자료를 전사한 축어록(畜語錄)을 작성하고, 관찰하며 기록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분석 자료는 관찰하

며 기록한 메모자료와 심층면접의 전사한 자료였다. 심층면접에 관한 사전동의 과정을 거친 후, 녹음을 한 내용은 101분이었고 이를 전사하여 A4용지 31장(글자 10, 줄간격160)의 자료를 구성하였다. 연구자와 참여자가 주고받은 대화는 총 420개 단락의 대화였고, 참여자 반응은 210개의 단락이었다. 자료의 해체 과정은 축어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사례에서의 중요한 감정, 경험, 상호작용을 구분해가는 과정이다. 자료를 해체하는 방법은 단어, 문장, 단락, 에피소드, 주제 등에 따라 연구자가 기준을 설정하고 해체하는데 (Streubert & Carpenter, 1995), 본 연구에서는 문장을 기준으로 하여 자료를 해체하여 주요한 문장에 이름을 붙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만약 한 문장에 다른 주제의 개념이 있다면 구절단위로 세분화하여 해체하여 명명하였다. 분류와 해석의 단계를 통해, 유사한 개념을 범주화하여 추상적이고 상위적인 의미인 하위범주, 범주를 도출하였다.

#### 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보장 과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서의 고려사항인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tion), 중립성(neutrality) 등을 준수하였다(Lincoln & Guba, 1985).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의 개념에 해당하는 사실적 가치 보장을 위해, 연구자는 심층면접 중에 참여자의 이야기한 내용의 요지를 정리하며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심층면접 이후 명명화한 개념을 참여자에게 보여주며 참여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연구자가 정확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의 개념에 해당하는 적용성 보장을 위해, 연구자는 자료의 해체 결과와 개념 도출의 결과, 범주화한 결과를 성폭력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전문가 1명과,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상담전문가이고 질적 연구의 경험을 많이 한 1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다른 사례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의 주관적 분석을 배제하려는 노력과 관련

이 있는 중립성을 위해, 연구자는 위의 전문가 2명에게 연구문제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 축어록 내용과 명명화의 적절성, 도출한 개념과 범주의 분류 등의 연구 과정과 분석 과정, 연구 결과의 검토를 의뢰하는 삼각 검증(Denzin, 1978)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연구결과, 18개의 범주, 38개의 하위범주, 56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 1. 성폭력 피해 후의 경험

첫 번째 연구문제인 ‘연구참여자는 성폭력 피해 후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는 부모에 대한 원망, 침습 기억, 성폭력 인식에 따른 부정감정, 방어기제의 발현, 감정 조절 상실, 자기에 대한 부정적 관계, 타인에 대한 불신, 삶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과 같은 8개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부모에 대한 원망’의 범주에 포함된 하위범주는 부모의 무관심이다. 참여자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어렸을 적에 참여자와 관련하여 오빠가 사망함에 따라 참여자에게 오빠 사망의 탓을 돌리며 가족들이 참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가족관계의 특징으로 인해, 참여자가 10대 초반에 친족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경험했을 때, 가족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장기간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원망하였다.

*꼭 보호해주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엄마가 저한테 조금이나마 사랑. 스किन십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침습 기억’에 포함된 하위범주는 같은 이름으로 명명한 하위범주이다. 참여자는 성추행을 행하며 말했던 친족의 말이 반복적으로 기억되는 고통을 경험했

Table 1. Categories and concepts about 1<sup>st</sup> research question

Categories	Subcategories	Concepts
Resentment against parents	Parental indifference	Grudge against parents for not paying attention
		Childhood without a loving memory
		Indifference of family due to brother's death
Invasive memories	Invasive memories	Invasive memories
Negative feelings of sexual violence awareness	Anger	Excessive Anger
	Helplessness	Helplessness in life
	Sadness	Unforgettable grief
		Experiencing emotional ups and downs and sadness
	Shame	Shame on sexual violence
	Anxiety	Excessive anxiety about a daughter
		Thought that pain will last for the rest of life
	Fear	Fear about collapse of life
Unfairness	Unfair thinking about repression and denial	
Regret	Regret of the continuation of pain	
Expression of defense mechanism	Repression	Repression of anger
		Repression the memories about sexual violence
		Nonrecovery of trauma
	Denial	Denial of sexual violence
	Avoidance	Avoidance of similar cases
Loss of emotion control	Loss of emotion control	Failure to control emotions on encountering similar cases
		Unforgettable memories and emotional explosions
Negative relationships with self	Low self-esteem	Low self-esteem
	Self-reproach & self-discipline	Self-reproach about sexual violence
		Marriage to punish oneself
Distrust of others	Distrust of men	Distrust of men
Negative gaze on life	Tortuous life	Tortuous life because of sexual violence

다고 한다.

귀를 막 떼어내 버리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폭력 인식에 따른 부정감정’에 포함된 하위범주는 분노감, 무력감, 슬픔, 수치심, 불안, 두려움, 억울함, 안타까움 등이다.

근데 그게 저 자신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으로 작용을 한 거 같기도 하고...

‘방어기제의 발현’에 포함된 하위범주는 억압, 부인, 회피 등이다.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직접적인 치유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 같아요.

다만 이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라서 무의식이 억눌렀던 거 같아요.

‘감정 조절 상실’에 포함된 하위범주는 같은 이름으로 명명한 하위범주이다.

살면서 너무 너무 힘들 때 엄마에게 원망을 쏟을 때 그게 왜 원망이 쏟았냐면 그 \*\*오빠가 장애인인데 엄마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저도 모르게 내면에 억눌렀던 분노 감정이 올라 왔던 거 같아요. 성인이 됐을 때...

‘자기에 대한 부정적 관계’에 포함된 하위범주는 낮은 자존감과 자책·자학 등이다.

자존감도 워낙 낮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래서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도 모르는 저의 실체

를 보이게 되는 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별 줄 만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자학하듯이...

‘삶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포함된 하위범주는 굴곡진 삶 등이다.

저는 기억이 저를 힘들게 했다기보다는 치유 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정말 더 가슴이 아팠던 게 제가 그 상처를 받은 게 안타깝다기보다 그로 인해서 제 삶이 굴곡지게 살았다는 거죠

## 2. 외상 후 성장 과정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연구참여자는 성폭력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는 연구참여자의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와 관련한 범주는 자기개방을 통한 성장의 시작, 사람들의 동감과 위로, 직면과 수용, 자기와 가족관계 인식, 가족에게 자기개방, 가족 수용과 활발한 감정교류, 타인 수용과 신뢰 회복, 성장을 향한 몸무림, 자기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 삶에 대한 수용 등 10개의 범주이고 <Table 2>와 같다.

### 1) 자기개방을 통한 성장의 시작

본 범주에 포함된 하위범주는 자기개방, 자기개방을 통한 용기이다. 참여자는 서로 고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개방하였고, 인터넷 상에서 위로의 피드백을 받으며 타인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어 더 많은 자기개방을 할 수 있었다. 인터넷 상에서 특별히 더 신뢰가 가는 피드백 제공자와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이들도 성폭력 피해자였고, 참여자는 이들에게 자기개방을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자기개방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거나 내 아픔을 들어 줄 수 있는 사이트 친구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더 안정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또 과정 중에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 할 수 있게 되고

### 2) 사람들의 동감과 위로

본 범주에는 같은 이름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는 온라인(on-line) 상에서 만난 성폭력 피해자들을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도 만나 함께 울고 서로 위로를 하였다. 이처럼 함께 동감하고 위로를 주고받는 친구들로 인해 감정이 정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자의 자기개방으로 용기를 얻는 친구들도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과 그동안 고통 받았던 경험을 개방하였고, 서로 자기개방을 더 깊이 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타인과의 불신이 극복되고 주변사람에게 용기 내어 먼저 말을 걸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사이트 안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매일 통화했던 친구가 있어요 올라오는 감정들 같이 울고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힘이 굉장히 컸죠

### 3) 직면과 수용

본 범주에 포함된 하위범주는 외상의 직면, 외상의 수용, 수용과 개방이 성장의 시작 등이 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참여자는 분노감정을 억압하고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분노감이나 불안을 조절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더 이상 외상의 기억을 부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한다는, 회복에 대한 절박함을 인식하였다. 그 후 참여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고 자기개방을 하면서 그동안 억압하고 있었던 불안을 직면할 수 있었다. 즉, 그 동안 자신이 억압했던 기억과 감정들을 직면하는 것 자체로 회복과 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자기개방을 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 됨을 경험하였다.

어찌 보면 내가 이런 경험을 했구나 하는 것을 수용을

Table 2. Categories and concepts about 2<sup>nd</sup> research question

Categories	Subcategories	Concepts
Beginning of growth through self-disclosure	Self-disclosure	Self-disclosure on an internet site
		Self-disclosure attempts through faith in others
	Courage through self-disclosure	Courage through self-disclosure
Others' sympathy and comfort	Others' sympathy and comfort	Sympathy of internet site members
		Comfort of the same victims
		Help of recovery due to friends gave sympathy & consolation
		Help of friends opened themselves and sympathized
		Help from the people around
Face to face and acceptance of trauma	Face to face of trauma	Face anxiety through self-disclosure
		Begins of recovery with facing trauma
	Acceptance of trauma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cceptance of trauma
	Acceptance and openness as start of growth	Acceptance and openness as start of growth
Self & family perception	Inner Introspection & understanding	Inner Introspection & understanding
	awareness of relationship with spouse	Recognition of distances from husbands because of trauma
Disclosure self up to family	Reveal of trauma to children	Reveal of sexual violence to children
	Reveal of trauma to spouse	Reveal of sexual violence to husband
		Expressing pain to husband
Acceptance of & active emotional exchange with family	Active emotional exchange with spouse	Exchange feelings with husband
	Acceptance of spouse	change of sexual relationship through husband's acceptance
		Effort to accommodate husband
family gives strength to life	Children gives strength to life	
Acceptance of others and restoration of trust	Acceptance of others	Acceptance of others after self-acceptance
	Restoration of trust of others	Restoration of trust due to friends' feedback
Struggles for growth	Struggles for growth	Struggles for growth
Confidence & affection for self	Confidence	Self-confidence to endure trauma
	Self-love	Desire to grow oneself
		Desire to love oneself more
		Finding advantages after recovery
Acceptance of life	Cherishment of feelings	Hope to expression of anger in a healthy way
	Acceptance of life	Acceptance of the reality of living with trauma

했고 그것을 개방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치유하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4) 자기와 가족관계 인식

본 범주에는 내면의 성찰과 이해와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타인에게 자기를 개방하면서 외상 경험과 감정에 대해 수용하고 직면하게 되면서 참여자는 자신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특정 상황에서 불안해하거나, 딸에 대해 불안에 휩싸여 통제를 하는 이유를 깨닫는 등 내면을 성찰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배우자와

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동안 자신의 외상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었고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를 인식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것처럼 남편하고도 그 때부터. 제가 남편한테 미안해 했어요 상처를 기억하고 치유하면서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 했는데 내가 나의 상처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거를 내가 저 사람을 밀쳐 냈고 거부했고 그리고 아니라고 부정했으니 까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 동안에는 행동들이 미웠고 원망스러웠었는데 이게 내 탓이었구나. 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원인이 나한테 있었구나.

5) 가족에게 자기개방

본 범주에는 자녀에게 외상경험 개방, 배우자에게 외상경험 개방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인터넷 사이트와 이를 통해 만난 타인에게 자기개방을 하며 외상경험에 대한 직면과 수용을 하게 되어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고 안전감을 느낀 참여자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개방하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로 인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며 남편과 이야기하고 자신이 남편에게 어떻게 분노를 표현했는지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당신이 나를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사실은 내가 당신이 싫어서 못 만지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내 손에 남아 있어서 당신을 못 만지는 거다. (중략)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는 말은 안 했어요 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일부러 대단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 건 아니었고요 침묵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견뎠죠.*

6) 가족 수용과 활발한 감정교류

본 범주에는 배우자와의 활발한 감정교류, 배우자를 수용, 삶에 힘이 되는 가족 등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가족에게 자기개방을 한 후, 참여자는 남편과 서로 힘들었던 관계와 오해, 갈등으로 인해 경험했던 불유쾌한 감정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가족에게 자기개방을 하고 배우자와 감정을 교환하는 경험을 한 후, 참여자는 성폭력 피해의 외상을 극복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경험을 하였는데, 이것이 남편의 수용을 통해 남편과의 성관계에 변화를 체험한 것이다. 배우자의 참여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 참여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참여자를 오해하거나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안아주면서 수용하는 행동이 참여자의 이후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내 짐이 남편한테 짊어지게 됐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 저를 꼭 안아 주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랐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남편하고 정말 진하게 사랑을 했죠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7) 타인 수용과 신뢰 회복

본 범주에는 타인의 수용, 타인에 대한 신뢰 회복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어렸을 적의 경험이 성폭력 피해였다는 것을 사춘기 때 인식을 한 참여자는 타인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믿지 못하였으나, 자기를 개방하고 타인과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참여자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자기를 수용하고 타인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가 자기개방을 하면서 친밀하게 지냈던 주변 사람들,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위로와 피드백을 통해 참여자는 그들에 대한 신뢰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됨을 경험하였다. 특히, 가족에게 자기개방, 가족 수용과 활발한 감정교류, 타인수용과 신뢰회복 등의 범주는 Tedeschi & Calhoun(1996)이 외상 후 성장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타인과의 관계변화와 관련이 있는 범주이다.

*해방된 거 같아요 아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보면 예전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정서적으로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지금은 그런 거에 비해서 예전에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죠 나 또한 그런 잣대로 살았고 나도 모르는 상처를 무지하게 많이 주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속이 넓어졌고 나 자신에 대한 잣대가 넓어지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잣대로 많이... 사람 됐죠.*

8) 성장을 향한 몸부림

본 범주에는 회복을 위한 몸부림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경험을 한 참여자는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치유된 확신을 경험하였지만, 자신의 심리와 대인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아주 평화로워졌죠 마음이. 제가 치유하고 나서 가장 속상했던 것이 남들은 그냥 당연히 하던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노력을 해야지만 얻어지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건강한 인간관계에서도 하나하나 노력해야 하고 남들이 느끼는 잔잔한 기쁨도 저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잔잔한 기쁨을 누리게 됐고.*

### 9) 자기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

본 범주에는 자신감이 생김, 자기에 대한 애정이 생김, 감정을 소중히 생각 등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성폭력의 외상으로부터 치유되었다고 확신한 참여자는 외상에 대해 앞으로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더 많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을 느낄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에 대해 자원과 장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그동안 억압했던 분노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분노감을 느낄 때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바람을 이야기하였다. 이 범주는 Tedeschi & Calhoun (1996)이 외상 후 성장의 결과로 주장한 자기 인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범주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 그게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성장에 대한 욕심... 제 영혼을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예전에는 몰랐어요, 있는지. 치유하면서 내가 성장에 대한 욕구가 많구나...*

### 10) 삶에 대한 수용

본 범주에는 같은 이름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는 성장을 향한 몸부림의 범주에서와 같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타인과의 신뢰감이 회복되고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지만 계속 노력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였다. 그러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부터 완벽히 회복한 상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삶에 대한 수용과 관조적인 태도, 여유를 보였고 이전처럼 고통스런 삶을 살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과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의 인식은 Tedeschi & Calhoun(1996)이 외상 후 성장의 결과 중 하나로 보는, 삶의 철학에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는 Tedeschi & Calhoun(1996)이 주장한 외상 후 성장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자기 인식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삶의 철학에서의 변화를 모두 경험하고 있어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괴로운 상황을 바닥을 1로 하고 내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10으로 했을 때 지금은 \*\*씨는 어느 정도 몇 점*

*정도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많이 줘서 7, 8점 정도... 남은 2, 3점은... 그거는 아마 평생을 가져가지 않을까... 아마 성폭행 상처는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가 안 끼치는가의 차이이지. 평생 가져가지 않을까... 물론 상처가 많이 아물어서 조금 덜 아프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아주 많이 아프진 않겠지만. 그래. 예전처럼 많이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 IV. 결론과 논의

친족 성폭력을 경험한 연구참여자의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참여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침습 기억, 부정적 감정과 통제력 상실, 억압과 회피 등의 방어기제를 경험하면서 자기에게, 타인에게, 삶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는 자기를 수용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을 경험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삶을 수용하는 경험을 하기에 이르렀다. 즉, 참여자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상들을 경험하였으나, Tedeschi & Calhoun(1996)이 외상 후 성장의 결과로 주장한 자기 인식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삶의 철학에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의 여러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할지라도 외상 후 장애를 계속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성장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Tedeschi & Calhoun(1996)의 주장을 본 연구결과가 뒷받침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성장 경험의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연구들(Choi, 2018; Frazier, et. al., 2001; Han, 2008; Ko, 2018; Shim, 2018)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삶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독특한 경험에 따라 외상 후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회복을 넘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근거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개방하는 시도를 한 결과 사람들로부터 동감과 위로를 받은 경험을 했고, 뒤 이어 자신에 대한 직면과 수용이 이루어지는 순으로 경험이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개방함으로써 가족관계에서의 변화도 경험할 수 있었다. 즉, 연구참여자는 전문가의 심리치료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의 자기개방, 같은 피해자와의 동감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외상경험에 대한 기억과 부정적 감정을 직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기에 대한 인식과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었고 자녀와 배우자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개방함으로써 가족관계에서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데에 외상기억의 직면과 개방, 주위 사람들로부터 동감과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시사한다.

연구참여자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뢰로운 사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자기개방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담의 기법과 전문적인 공감반응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아픔에 대한 동감과 위로의 말을 통해서 참여자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연구참여자가 어렸을 적 경험이 성폭력 피해였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자기개방, 신뢰로운 사람들로부터 동감(sympathy)과 수용을 체험한 경험 등을 통해 외상으로 인한 기억과 감정을 직면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인식, 타인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에서 자신이 어떠한 의사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었다.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한 이러한

경험들은 전문 심리치료사로부터 깊은 공감(empathy)을 체험하고, 라포(rapport)를 경험하면서 점점 더 깊은 자기개방을 할 수 있는 촉진적 관계(Shin, 2010)를 경험한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도 경험될 수 있었고 더 큰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전문가의 심리치료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개방을 돕고 공감체험과 촉진적 관계를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오랜 기간이었다고 할 지라라도 외상 후 성장의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자기개방을 한 경험과 같은 성폭력 피해자와 아픔을 공유하면서 함께 우는 등의 동감의 경험을 한 것과 위로 받는 경험은 연구참여자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아픔을 무기명으로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기개방의 기회와 같은 피해자들 간의 자조집단의 경험이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의 위기관리를 위해, 자기개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상, 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장(場)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로 인한 괴로움에 대해 무기명, 또는 기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마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화 사이트의 확충이 필요하다. 물론 1366 여성 긴급전화와 같은 전화가 있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과 상담센터의 연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초동 조치에 대한 조언 등을 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정보제공과 조치의 기능을 하는 여성 긴급전화와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의 중간 역할을 하는 전화상담 기관, 예를 들면 생명의 전화, 여성의 전화와 같은 기관의 확충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 자조모임에 대한 홍보와 지원, 관련 독서모임, 영화모임 등의 확충과 홍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러한 장(場)에서 자기개방

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전문가에게로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토대의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참여자가 타인에게 자기개방을 하면서 외상 후 성장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외상 후 성장의 큰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에게 자신의 외상 경험을 개방하고 배우자에게 수용 받았던 경험 때문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위로의 경험을 하였을 때에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Jeong & Cheon (201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성폭력 피해는 마치 교통사고처럼 누구에게나 경험될 수 있는데, 이때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경험하게 하는 대상이 바로 가족이라는 선행연구(Chae, 2016)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고 따뜻하게 수용하고 위로하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의 극복과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의 방향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와 논의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의 한계를 통해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하기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양적 연구가 아니라,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 특히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는 데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한 개인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에 어떤 감정과 양상을 경험하였고,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생생하고 심층적인 이야기를 듣고 분석을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즉,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이 개인 내적으로, 그리고 대인 상호작용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

지를 성폭력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그 동안의 양적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미치는 요인들, 예를 들면 연령과 발생시기(Shim, 2018), 지각된 통제감(Jeon, 2017), 집단상담과 같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Ko, 2018) 등을 확인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또한 성격 유형(Frazier, *et. al.*, 2004), 사고 방식(Frazier & Burnett, 1994), 영성적 생활(Kleim & Ehlers, 2009) 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처럼 양적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심의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한 개인이 아동기 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개인 내적으로는 자기개방을 통해 성장의 시작을 경험하고, 자신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직면과 수용을 하였으며,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자신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타인과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경계를 하였는지, 자기와 가족관계에 대해 인식을 한 것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사람들의 동감과 위로를 받고 가족에게 자기개방을 하였으며, 가족들이 피해자의 아픔을 수용과 활발한 감정교류를 하며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것을 밝혔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질적 연구라는 한계 상, 본 사례에서 발견한 상호작용의 특징과 현상들은 연구참여자에게서 발견한 현상들이라는 한계가 있다. 물론 질적 사례연구의 결과물이 일반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Merriam, 1988), 질적 연구의 한계 상 일반화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점을 본 연구의 한계로 제시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의 수준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개방의 수준과 외상에의 직면, 타인과 가족과의 의사소통 수준이 어떻게 매개하고 조절하는 지 등에 대한 양적 연구를 제안한다. 이러한 후속연구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로서, 연구참여자의 선정 과정

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모집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 외상 후 성장의 판단 근거에 대해 고지 받고 주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연구에 자원하였다. 물론 연구자가 연구의 사전 동의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심층면접 종결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험 여부, 외상 후 성장의 요소 유무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분석 자료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층면접을 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자료로 채택하지 않은 자료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가 선정 과정에서 상술하였다. 연구자가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피해자지원협회의 1급 자격을 갖추고 주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하고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평가, 외상 후 성장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참여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구로 평가한 후에 선정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본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평가도구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평가할 수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거나, 과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Song, 2007)로 평가한 후에 심층면접을 하면 질적 사례 연구의 객관성을 보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 Reference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urt, M. R. and B. L. Katz. 1987. Dimensions of Recovery from Rape: Focus on Growth Outcom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 57-81.
- Chae, Gyu Mahn. 2004. *Psychotherapy of Sexual Violence*. 2nd Ed. Seoul: Hakjisa.
- Chae, Hyun Sook. 2016.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erceived as Secondary Dama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8(1): 117-140.
- Choi, Hye Jeong. 2018.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Voluntary Incident Disclosure by Sexually Abused Children. *School Social Welfare*. 1(41): 151-174.
- Choi, Mi Jin. 2017. *The Second Injury of Sexual Violence and the Victim-centered Controversy*. Seoul: Cheak Gal Pi.
- Choi, Wol Seong. 2018.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Healing Process of Female Victims of Sexual Violence: Focusing on Writing. Ph. D. Dissertation. Seoul Han-young University.
- Denzin, N. K. 2009.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1st Ed. New York: Routledge.
- Draucker, C. B. 1992. Construing Benefit from a Negative Experience of Incest.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4: 343-357.
- Draucker, C. B. 1999. Early Family Life and Victimization in the Lives of Wome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0(5): 399-412.
- Frazier, P. A. and J. W. Burnett. 1994. Immediate Coping Strategies among Rape Victim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6): 633-639.
- Frazier, P. A., A. Conlon, and T. Glaser. 2001. Positive and Negative Life Changes Following Sexual Assaul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6): 1048-1055.
- Frazier, P. A., T. Tashiro, M. Berman, M. Steger, and J. Long. 2004. Correlates of Levels and Patterns of Positive Life Changes Following Sexual Assaul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1): 19-30.
- Gwynn, S. 2008. Adult Attachment and Posttraumatic Growth in Sexual Assault Survivor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Denton, Texas.
- Han, Hyen Jin and Wan Joo Park. 2018. Influencing Factors of the Vicarious Traumatization and Professionalism on the Vicarious Traumatic Growth of Sexual Violence Victim Support Workers. *Korean Journal of Scientific Investigation Society*. 12(3): 174-182.
- Han, In Young, Myeong Sook Park, Seo Goo Yoo, and So Young

- Ryu. 2008. Factors Affecting Victimization Syndrome of Sexual Abuse: With a Focus on Parental Response to Incidents of Sexual Abus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1): 327-356.
- Han, Jong Wook. 2019.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for Child Sexual Violence. *Police Science*. 14(2): 115-146.
- Han, Noh Eul. 2008.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osttraumatic Growth: In Female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 Hong, Ye Young. 2017.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nge Process of Adolescents Prior to Discharge from Foster Care Institutions. Ph. D. Dissertation of Seoul Women's University.
- Jeon, Hee Won. 2017.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on Relations between Trauma Experience & Posttraumatic Growth of Female Sexual Violence Victims.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 Jeong, Joo Eun and Seoung Moon Cheon.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Living as a Sister of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omen*. 18(1): 55-83.
- Jeong, Mee Eh and Hee Sook Gang. 2018.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 Incest Victims. *Journal of Youth Welfare*. 20(2): 67-93.
- Kim, In Joo and Doh Yeon Kim. 2015.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Decentering, and Meaning in Life on Post-traumatic Growth: Among Sexual Violence Trauma Center Workers who Experienced Vicarious Trauma.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5): 55-73.
- Kim, Moon Gywee. 2019. The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Sexual Assault Offenders: Focused on 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Legal Practice Study*. 7(2): 203-225.
- Kim, Tae Myung. 2011. Realities of Sexual Violence & Its Counter Measures.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2(3): 5-44.
- Kleim, B. and A. Ehlers. 2009. Evidence for a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and Post-trauma Depression and PTSD in Assault Survivo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2(1): 45-52.
- Ko, Hae Kyeong. 2018. Posttraumatic Growth Group Counseling Program on Emotion Regulation, Sexual Violence Attribu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of the Female Experienced Sexual Violence. Master's Thesis. Gyung-seong University.
- Kondora, L. L. 1993. A Heideggerian Hermeneutical Analysis of Survivors of Inces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1): 11-16.
- Kong, Choon Ohk and Bong Hwan Kim. 2014. On the Meanings of Thriving Experiences Through Sexual Violenc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omen*. 19(4): 409-431.
- Kunst, M. 2011. Affective Personality Typ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Severity and Post-traumatic Growth in Victims of Violence. *Stress and Health*. 27(1): 42-51.
- Kwon, Hae Soo. 2014. A Delphi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ealing Counseling Contents for the Victims of Sexual Abus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5(1): 1-15.
- Lee, Geun Woo. 2019. A Critical Review on Strict Interpretation of Crime of Taking Photos by Using Cameras in Korean Supreme Court Ruling: 2018. 8. 30. 2017do3443. *Lawyers Association Journal*. 68(1): 549-568.
- Lee, Gil Goo. 2018. A Qualitative Case Study on Phobia Racket Feelings of Sexual Offenders with Electronic Devices. *Study on Interchange Analysis Counseling*. 8(2): 1-18.
- Lee, Ha Na. 2016. The Effect of Disclosure on Posttraumatic Growth amo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Focusing on the Social Reactions and Intentional Ruminatio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Lee, Hye Jeong. 1998. Gestalt Psychotherapy in the Sexual Violence Group. Master's Thesis. Seong-shin Women's University.
- Lee, Me Hye and Seung Yeon Seong. 2014. A Review of Counselor's Vicarious Trauma.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3(1): 109-137.
- Lee, Seung Hee. 2010. Program Research and Analysis of Trends with Centered on Sexual Assault Post-traumatic Stress Art Therapy.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Ligiero, D. P. 2003. Culture, Coping and Childhood Sexual Abuse: A Qualitative Study of Latina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Lincoln, Y. S. and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inley, P. A. and S. Joseph.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 McMillen, C., S. Zuravin, and G. Rideout. 1995. Perceived Benefit from Child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6): 1037-1043.
-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San Francisco, London: Jossey-Bass Publishers.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A Study on the Survey of Sexual Violence in 2016*.
- Moon, Hyeon Joo. 2015.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in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9(3): 1-29.
- Oh, Ji Ah. 2010. Case Study of Children Damaged by Sexual Violence through Sand Tray Therapy. *Journal of the Sand Tray Therapy*. 1(1): 143-160
- Park, C. L. and V. S. Helgeson. 200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Growth Following Highly Stressful Life Events-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791-796.
- Park, Eun Ah.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and Quality of Relationship. Ph. D. Dissertation. Jeon-buk University.
- Park, Ka Ram and Nam Woon Chung. 2008. Clients' Helpful Experience in Sexual Violence Counseling: A Qualitative Analysis(Helpfu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 161-182.
- Park, Kyung.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Posttraumatic Growth on the Relation between Rumination Style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4(2): 51-64.
- Pi, Mee Gyeong.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Damage Recovery Programs in Protective Facilities: Focusing on Female Sexual Violence Victim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aster's Thesis. Geon-Guk University.
- Seo, Hye Gyeong. 2015. *A Study on the Sexual Violence while Dating among College Students in Busan ·Gyeong-nam Province*. Master's Thesis. Gyeong-nam University.
- Shakespeare-Finch, J., E. Martinek, R. G. Tedeschi, and L. G. Calhoun. 2013. A Qualitative Approach to Assessing the Validity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Journal of Loss and Trauma*. 18(6): 572-591.
- Shim, Sol Ji. 2018. The Effects of Traumatic Experience and Focusing Manner on Post-traumatic Growth: Focused on Sexual Violence Group,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Group, and Non-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Groups. Master's Thesis. Duk-seoung University.
- Shin, Gyeong Jin. 2010. *The Process and Dialogue Techniques of Counseling*. Seoul: Hakji-sa.
- Song, Seung Hoon. 200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 Stake, R. E. 2000. *Qualitative Case Study*. Translated by Yong Hee Hong, Gyeong Joo Rho, and Jong Hee Shim. Seoul: Changji-sa.
- Streubert, H. J. and D. R. Carpenter. 1995.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18. *2017 Crime White Paper*. Supreme Prosecutors' Office.
- Tedeschi, R. G. and L. G. Calhoun.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and L. G. Calhoun.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2.
- Tedeschi, R. G. and L. G. Calhoun.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Ullman, S. E. 2014. Correlates of Posttraumatic Growth in Adult Sexual Assault Victims. *Traumatology*. 20(3): 219-224.
- Ulloa, E., M. L. Guzman, M. Salazar, and C. Cala. 2016. Posttraumatic Growth and Sexual Violence: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5(3): 286-304.
- Valentine, L. and L. L. Feinauer. 1993. Resilience Factors Associated with Female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3): 216-224.
- Wang, Y. W. and P. P. Heppner. 2011. A Qualitative Study of Childhood Sexual Abuse Survivors in Taiwan: Toward a Transactional and Ecological Model of Cop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3): 393-409.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Yoo, Gah Hyo and Jeong Yim Nam. 1995. A Study on the Child Sexual Abuse and Related Variables: Focused on Experiences of Female Adolescents in Metropolitan Area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5): 221-239.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Stake, R. E. 2000. 질적 사례 연구.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공역. 서울: 창지사.

고혜경. 2018. 외상 후 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성폭력 피해 경험 여성의 정서 조절, 성폭력 귀인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공춘옥, 김봉환. 2014.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장(thriving)” 경험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409-431.

권혜수. 2014. 성폭력피해자의 치유상담 내용 구성을 위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연구*. 15(1): 1-15.

권희경. 2004. 성피해 상담모델들과 상담 성과에 대한 개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187-205.

김문귀. 2019.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 적용사례: 지원과 책임 서클을 중심으로. *법률실무연구*. 7(2): 203-225.

김인주, 김도연. 2015. 지각된 사회적 지지, 탈중심화,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리 외상을 경험한 성폭력 지원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6(5): 55-73.

김태명. 2011.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2(3): 5-44.

대검찰청. 2018. 2017 범죄백서. 서울: 대검찰청 법무연수원.

문현주. 2015.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재활복지*. 19(3): 1-29.

박가람, 정남운. 2008. 성폭력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지각한 도움경험(Helpful Experience).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61-182.

박경. 2012. 외상경험 대학생들의 반추양식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외상후성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2): 21-64.

박은아. 2014. 성인의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낙관성과 관계의 질의 다중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서혜경. 2015. 부산·경남지역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신경진. 2010. 상담의 과정과 대화 기법. 서울: 학지사.

심슬지. 2018. 외상경험과 포커싱적 태도가 외상후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피해 경험자, 대인외상 경험자, 비대인 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여성가족부. 2017.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오지아. 2010. 모래상자치료를 통한 성폭력 피해아동 사례연구. *모래상자치료연구*. 1(1): 143-160.

유가효, 남정임. 1995. 아동 성학대의 실태와 관련변인: 지방대 도시 청년기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33(5): 221-239.

이근우. 2019.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법조*. 68(1): 549-568.

이길구. 2018. 전자장치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공포 라켓감정 특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류분석상담연구*. 8(2): 1-18.

이미혜, 성승연. 2014. 상담자들의 대리외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109-137.

이승희. 2010. 성폭력 외상후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의 현황분석과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이하나. 2016.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자기 개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반응과 의도적 반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이혜정. 1998. 성폭력 피해 집단의 게슈탈트 심리치료.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전희원. 2017. 여성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정미애, 강희숙. 2018. 청소년의 친족성폭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0(2): 67-93.

정주은, 천성문. 2013.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자매로 살아가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55-83.

채규만. 2004. 성피해 심리치료(2판). 서울: 학지사.

채현숙. 2016.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2차 피해로 인지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8(1): 117-140.

최미진. 2017.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서울: 책갈피.

최월성. 2018. 성폭력 피해여성의 치유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글쓰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한영대학교

최혜정. 2018.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자발적 사건폭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1(41): 151-174.

피미경. 2017. 보호시설 피해회복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한노을. 2008. 외상 후 성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아동기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한인영, 박명숙, 유서구, 류소영. 2008. 아동청소년 성학대 피해

증상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5(1): 327-356.

한중욱. 2019.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14(2): 115-146.

한현진, 박완주. 2018.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종사자의 대리외상과 전문직업성이 대리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과학수사학회지. 12(3): 174-182.

홍예영. 2017.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 둔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Received: Oct. 30, 2019 / Revised: Dec. 3, 2019 / Accepted: Dec. 9, 2019

##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의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밝히기 위해, 성폭력을 경험한 한 명의 연구참여자를 심층면접 한 질적 사례 연구이다. 연구문제는 첫째, 성폭력 피해 후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둘째,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이다. 연구참여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고 어렸을 적에 친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 심층면접을 하고 전사한 자료를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을 하여, 56개 개념과 38개 하위범주, 18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연구참여자는 성폭력 후에 침습적 기억, 피해 인식에 따른 부정적 정서, 방어기제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성장의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경험하고 있었다. 즉, 자기개방을 통한 성장의 시작, 사람들의 동감과 위로, 직면과 수용, 자기와 가족관계 인식, 가족에게 자기개방, 가족 수용과 활발한 감정교류, 타인 수용과 신뢰 회복, 성장을 향한 몸부림, 자기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 삶에 대한 수용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 외상 후 성장, 성폭력, 자기 개방, 질적 사례연구, 심층면접

**Profiles** **Yo Wan Kim** : He received his B.A., M.A., Ph.D. from Yonsei University, Korea in 2007. 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Family Counseling at Seoul Cyber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10.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sexual & family violence, mental health, and the process of counseling. He has published books about sex counseling and family violence, such as “Counseling & Education for Human Sexuality” and “Counseling for Domestic Violence”(kywan@iscu.ac.kr).